

서울시, 舊 국립보건원 부지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강북권 개발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4.8만㎡ 대규모 공공 유희부지 상암DMC 등 인접... 창조산업 지원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대상지로 구(舊)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균형발전형사전협상은강남북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시가 마련한 제도로, 강북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면적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희부지로,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시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서울시가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상지 주변은 상암DMC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과 홍익대학교와 같은 유수의 대학이 5km 근거리에 밀집해 창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창조산업 거점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유인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일자리 시설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여준다. 일자리 시설 비율이 70%를 넘어서면 공공기여율을 중전 60%에서 30%까지 낮춰 최대 50%를 완화한다.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탄소제로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설치 등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시 상한 용적률도 추가 적용해 1.2배 이상 완화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매각 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33년 창조타운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켜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켜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20일 세종대에서 진행된 ‘차량 내 운전자 감성 서비스를 위한 복합감정인지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 및 실증’ 1차년도 킥오프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 차량 내 감정인식 AI 개발 착수

산업부 지원 과제 선정... 킥오프 미팅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운전자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인지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술을 개발한다.

세종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과제에 선정돼 차량 내 감정 인식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지난 20일 킥오프 미팅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차량 내 운전자 감성 서비스를 위한 복합감정인지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진행된다.

핵심은 복합 감정 인지 모델을 개발해 한국형 감정 인식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한 운전자의 감정 상태에 맞춘 안전운전 지원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운전자의 실시간 감정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이용 시스템 온 칩(SoC)을 개발하고, 공동연구기관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세종대를 비롯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모트렉스, 연세대 산학협력단, 실버칩스, 수퍼게이트 등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기관들이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현진 기자

정근식 “교육적 입장에서 교육재정 확보돼야”

(서울시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농촌유학,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우려 청년교사·공무원 근무 지속 도와야



“농촌유학”을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흙을 밟는 도시아이들’이라는 슬로건으로 4년째 농촌유학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1년 8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뛰어넘어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교육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 ‘교육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던 정 교육감은 이날, ‘농촌유학’ 정책을 확산해 지역 양극화 완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00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7일 취임 후 한달여 만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한 자리에 모였다.

정 교육감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 및 사용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 지원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우수한 청년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하며, 교육감들은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현안, 교원 정원 배정을 교육청 주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토론한다. /이현진 기자 lhj@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 및 사용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 지원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우수한 청년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하며, 교육감들은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현안, 교원 정원 배정을 교육청 주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토론한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교육청, ‘마약예방 뮤지컬’ 제작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선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종로구 창신아트홀에서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 뮤지컬 공연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대상 신종 마약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해 수능 이후 전환기 교육으로 고3 학생들

을 위한 마약 예방 창작 뮤지컬을 제작했다.

공연은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배우 박해미 씨가 예술감독을, 배우 황성재 씨가 총괄 감독을 맡았다.

뮤지컬 공연은 오전, 오후 2회로 나눠 약 60분 동안 진행된다. 희망학교 중 선정된 14개교의 고등학교 학생 2800여 명이 직접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평택시, 내년도 예산안 2조4325억 편성

올해보다 1389억 늘어... 6.1% ↑

평택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2조432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389억원(6.1%)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원(3.3%)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한 고 효과적 재정부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441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80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169억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15억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택아트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282억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8685억원(42.8%) ▲교통 및 물류 1859억원(9.2%) ▲환경 1597억원(7.8%) ▲문화 및 관광 1316억원(6.5%) ▲농림해양수산 1165억원(5.7%) ▲국토 및 지역개발 1006억원(4.9%) ▲일반공공행정 826억원(4.1%) ▲교육 540억원(2.6%) ▲보건 402억원(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1억원(1.5%) ▲공공질서 및 안전 198억원(0.9%) 순으로 편성됐다.

한편, 평택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될 예정이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시도 사용 가능

오는 30일부터 확대 시행 3호선 44개 모든 역사서 사용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지역을 고양시와 과천시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자하는 시민들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충전해 쓰면 된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실물카드 구매를 원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카드를 산 뒤 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한 다음 사용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